

남해군,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...특교세 10억원 확보

등록 2023.01.11 09:33:46



[남해=뉴스시스] 차용현 기자 = 경남 남해군이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교세 10억 원을 받았다.

남해군은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'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'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교세 10억원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.

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'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및 추진계획'은 2022년 7월27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발표된 바 있으며,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통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.

이상민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'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'에서 남해군은 인접 지자체와 공동마케팅 추진

함으로써 중복사업을 최소화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데 큰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.

또한 남해군 행정과 관광문화재단 간 협업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. 이와 함께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을 종료하면서 기관 내 '기능조정'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정책효율서 제고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.

남해군에서 제출한 4건의 사례가 '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및 추진계획'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으면서, 특교세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.

장충남 군수는 "이번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사례에 남해군이 선정됨으로써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"며 "군청 내 부서 간 칸막이 제거는 물론 유관기관 간, 인접 지역 간 협업을 통해 끊임없이 행정 혁신을 도모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회의에는 광역자치단체로는 대구, 부산, 경북, 경남이 기초자치단체로는 남해군을 비롯해 경기수원, 경남양산, 경기포천, 전북완주, 서울도봉구, 인천서구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. 또한 전국 96개 지방공공기관(공사·공단 등)이 함께 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co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